

2018 올해 우리 로펌은...

지휘부 교체하고 해외사무소 · 분사무소 개설하고 전문팀 강화...

올해 한국 로펌업계에서 가장 주목을 끈 뉴스는 법무법인 화우를 시작으로 광장, 율촌까지 이어진 대표변호사 등 지휘부의 교체였다. 창업 세대가 일선에서 물러나고, 지휘부가 대폭 젊어진 것이 특징으로 로펌마다 안정적인 세대교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또 법무법인 세종이 하노이 사무소를 추가해 베트남 전선을 '투톱'으로 강화했으며, 김앤장도 베트남 호치민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국내에선 태평양과 세종이 잇따라 판교에 사무소를 오

픈하며 스타트업 등에 대한 밀착 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지평과 광장은 법인 조직도 유한 법무법인으로 변경했다. 하드웨어적인 이러한 변화와 함께 로펌들 내부에선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른 북한팀의 개편, 4차 산업혁명의 진전에 따른 블록체인·가상화폐팀의 강화 등 팀의 신설과 전문인력의 영입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다. 기업법무를 활발하게 수행하는 한국 주요 로펌들의 올해 활약상, 발전하는 모습을 조명한다.



담보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회계분식과 관련 회계법인의 책임이 문제된 전문인배상책임 사건 등을 수임하여 보험분야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

또 올해 전체 소요자금이 410억원에 이르는 전남 고흥 녹동에서 제주 성산포까지의 카페리 노선 개설과 관련해 자문해 성공적으로 합작투자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등 자문범위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도산사건 전문성 인정받아

세경은 올 10월 현재 8명의 한국변호사와 1명의 외국변호

사가 포진, 대형 로펌의 어느 해상팀과 비교해도 작지 않은 진용을 자랑한다. 특히 시니어 파트너가 직접 현장 이슈를 챙기며 소송사건을 진행, 높은 승소율을 담보한다는 평을 듣고 있으며, 리만 사태 이후 급증한 해운선사와 조선사의 여러 도산사건에서 외국계 클라이언트를 대리해 업무를 수행하는 등 도산분야에서도 국제적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동안 세월호선체조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활약해 온 김창준 변호사도 지난 9월 1일자로 다시 업무에 복귀해 후배들과 함께 직접 실무를 챙기고 있다. **LT**

설립 3년 만에 '5배 성장' KL 파트너스

한국 정부 상대 ISD 7건 중 3건 수행



법 무부에 따르면, 올 들어 접수된 4건을 포함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국가-투자자 분쟁(ISD)이 모두 7건으로 늘어났다. 국제중재업무가 발달한 국내의 로펌들 사이에 한국 ISD 특수가 형성되는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로펌 중 한 곳이 국제중재 부티크인 KL 파트너스다.

엘리엇, 메이슨 대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된 첫 ISD인 론스타 케이스에서 론스타를 대리해 최종 변론까지 마친 KL 파트너스는 지난 4월 미국계 헤지펀드인 엘리엇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한국 정부의 부당한 조치로 7억 7000만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ISD에서 엘리엇 측 자문사로 선정된 데 이어 지난 9월 미국계 사모펀드인 메이슨이 같은 이유로 최소 2억 달러의 손해를 입었다며 낸 ISD에서도 메이슨 측 대리인으로 선정됐다. 개인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1건을 제외한 6건의

ISD 중 절반에 해당하는 3건이 KL 파트너스의 손을 거쳐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로, 특히 3건 모두 외국투자자들을 대리하며 한국 ISD의 단골 로펌으로 선호되는 곳이 KL 파트너스다.

KL 파트너스의 김범수 대표변호사는 이와 관련, “외국투자자를 대리하는 것에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해외무역 의존도가 높고 외국투자자의 국내 투자가 긴요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외국투자자의 이익을 대리하는 변호사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 국내 대형 로펌들의 경우 삼



김범수 대표변호사

성 등 관련 당사자와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대리인 선정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대형 로펌 못지않은 높은 전문성을 갖춘 KL 파트너스가 선택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부티크로 독립한 지 3년 만에 대형 로펌보다 많은 ISD를 수행하며 화려하게 데뷔한 KL 파트너스는 국제상사분쟁에 더하여 IP 관련 계약에서 발생한 국제분쟁 사건도 새로 수행하는 등 국제중재 외 국제분쟁 쪽도 사건이 다양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M&A 리그테이블 10위권 탄탄

이성훈 변호사가 이끄는 또 한 축인 'M&A와 기업지문 분야도 안정기를 넘어 확장기에 들어섰다고 부를 수 있을 만큼 고객 층이 확대되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주요 매체의 M&A 리그테이블에서 10위권을 탄탄하게 확보하고 있는 KL 파트너스는 금호아시아나, 네이버, OCI 등 기존의 대기업집단에 더하여 GS, CJ 등을 고객 명단에 새로 추가했다. 또 대유그룹, 한국콜마, 서진그룹, 아이에스동서, 골든브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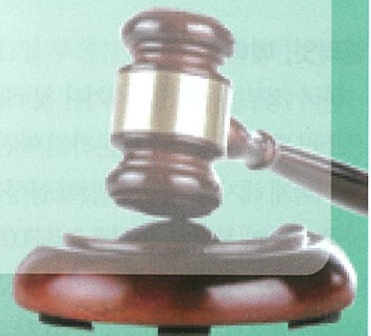
지 등의 중견기업집단과 쏘카, 여기어때 등 스타트업들도 고객군에 포함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KL 파트너스가 특히 강점을 갖고 있는 PE 쪽에서도, 기존의 IMM, KTB PE, JKL, 네오플릭스, 오케스트라, 하일랜드, 크레디언파트너스 등에 더하여 VIG, LK투자파트너스, 마이다스PE, 하베스트PE, 포시즌캐피탈 등의 PE 하우스들이 KL 파트너스에 자문을 맡기는 새 고객이 되었다. KL 파트너스 M&A팀은 여러 건의 인바운드 M&A 거래에서 해외 고객을 대리할 정도로 소속 변호사들의 영어 구사 등 국제역량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고 있다.

KL 파트너스는 올 들어 내부절차를 간소화하고, 문서와 지적 재산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후방 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개편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2015년 4명의 변호사로 출발, 3년 만에 약 5배인 23명으로 늘었을 만큼 무서운 속도로 세가 확장되고 있는 KL 파트너스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KL 파트너스의 구성원들이 설립 5년차인 2019년에 거는 기대 또한 대단하다. **LT**

대한변호사협회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 우리나라 법조 선두를 이끌고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 징벌적 손해배상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 3. 30)
- 〉 법전원 평가위 변호사 증원 '법학전문대학원법 개정안'(송기석 의원) 발의 (2017. 5. 31)
- 〉 변호사시험관리위 변호사 증원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송기석 의원) 발의 (2017. 5. 31)
- 〉 법무담당관 도입 '지방자치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발의 (2017. 6. 7)
- 〉 필수적 변호사변론주의 '민소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발의 (2017. 6. 15)
- 〉 준법지원인 선임기업 과징금 감경 '독점규제법 개정안'(권성동 의원) 발의 (2017. 6. 21)
- 〉 형사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형사소송법 개정안'(금태섭 의원) 발의 (2017. 9. 7)
- 〉 비밀유지권 보장 '변호사법 개정안'(나경원 의원) 발의 (2017. 9. 29)
- 〉 인지대감액 '민사소송 등 인지법 개정안'(진영 의원) 발의 (2017. 9. 29)
- 〉 인적사항 없이 형사 공탁 가능 '공탁법 개정안'(곽상도 의원) 발의 (2017. 10. 31)



대한변호사협회 | 06234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 18층 T. 02.3476.4000 / F. 02. 3476. 4008 www.koreanbar.or.kr